본 신문은 2026 인생독서X인생서점 사업비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착한책방 소식지
<그럴수동>

# 그럴수동

착한책방&북스테이
우리동네 감성재활소 착한책방

마음쉼표, 착한책방&스테이는 쉼과 회복의 가치를 추구하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독서모임, 독서교육, 마을텃밭 수동와밭 활동, 북토크, 음악회 등 나답게 살아가는 감각을 일깨우는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동네책방, 북스테이, 로스터리 북카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책방지기 책수달과 Juliwawa, 그리고 디자인 담당 무비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착한책방** Good Books Sudong

| | |
|---|---|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782번길 43-163 (입석리) |
| 운영시간 | Wed-Sun 11:00~ 17:00 |
| 휴무일 | 월-화요일 휴무 |
| 전화 | 031-591-6622 |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 감성재활소, 착한책방

### 착한책방 이야기

삶을 돌아보면 우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삶에 큰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있다. 지금 책방을 하고 있는 나의 경우도 그렇다. 살면서 책방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하지만 책방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삶의 여정 속에서 차근차근 준비되어 왔다는 생각이 든다.

대학에서 철학과 국문학을 전공하고 교직 이수를 하면서 세 가지 길을 생각했었다. 교육자의 길, 연구자의 길, 도를 닦는 길. 그 중 수도자의 삶에 대한 동경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다. 우연히 대학 후배를 따라서 가게 된 모임에서 그것이 수도회 성소 모임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고, 그 모임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자유로움의 경험이 계기가 되어서 수도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고 그 모임에 찾아간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열심히 수도 생활을 하다가 너무나 뜻밖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수도회 밖에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겠냐는 결정과 다름없는 초대를 받게 된 것이다. 뚜렷한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다. 그렇게 수도회를 나와서 마음 한 구석에 가지고 있던 청소년 교육의 꿈을 따라 대안학교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러다 우연히 "착한책방"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아이들과 방문해서 독서 수업도 하면서 착한책방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러다 특별한 계기로 책방운영을 맡게 되고 "하늘지음"이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2022년 12월 24일에 본격적으로 책방운영을 시작하게 되었다. 삶을 돌아보면 우연의 연속으로 이 자리까지 흘러온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 깊은 곳에 간직된 열망이 향하는 길로 걸어온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우연과 필연이 날실과 씨실로 직조되면서 펼쳐지는 것이 삶이란 생각이 든다. 삶이 신비롭다는 것.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지평 위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착한책방 운영자 책수달이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커먼즈에 대한 이야기다. 책방이 지금까지 운영되면서 수도 없는 고비가 있었다. 분명히 쓰러질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때마다 묘하게 지나가고 건너갔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에는 이웃의 도움이 늘 있어 왔다. 정말 신기할 정도였다. 지금은 책방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나는 작은 부분이고 그 너머에 어떤 이끌림과 흐름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8월말 비오는 토요일에 수동와밭에서 와밭 커먼즈 분들과 함께 솥뚜껑 닭갈비를 먹었던 기억이 잊히지 않는다. 그날 시작할 때는 주룩주룩 내리는 비에 날을 완전히 잘 못 잡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서히 날이 개면서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한 타이밍이었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배추전도 부쳐 먹고 음료캔에 허브 잎 데코를 해서 건배도 하면서 아이처럼 신나게 놀았다. 아이같은 마음, 모험을 감행해보는 용기, 틀에 갇히지 않는 생동감을 느낀 시간이었다.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커먼즈의 힘이고 매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책방과 스테이, 커피로스팅, 독서모임과 독서교육, 수동와밭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고되고 지칠 때도 있지만 인간다운 감각, 살아있다는 감각을 커먼즈 활동을 통해서 느끼고 회복할 수 있어서 좋다. 착한책방이 이곳에 머무는 분들에게 잔잔한 감성재활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책방지기 책수달(임준구)



## 착한책방 아카이브 7월 - 12월




































<특집기사>

# "북작커먼즈! 인문학강연에 도전하다!"

8월 30일 착한책방에서 진행한 '남양주 동네책방 인문학 이야기 두 번째 시간 <동네책방에서 경험하는 감성재활 이야기> 에서는 북작커먼즈 전원이 강연자로 참여하여 '북작커먼즈' 독서모임의 경험담을 나누어보았다.

## 독서와 일상의 사이 공간, 커먼즈

독서 후 남이있는 온기와 여운이 아쉬워서일까? 활자가 주는 의미가 아닌 들숨과 날숨 섞인 사람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것일까? 혹은 변하지 않는 세상을 조금은 변화시키려는 몸짓일까? [북작커먼즈] 라는 이름으로 모인 다섯 사람들이 <동네책방에서 경험하는 감성재활 이야기>라는 주제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나. 처음 이야기를 들려준 책수달님은 "어쩌다 보니" 라는 말을 여러번 했다. 어쩌다 보니 철학을 공부하고, 어쩌다 보니 수도회에 들어가고 나오게 되고, 또 어쩌다 보니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쩌다 보니 지금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책방지기 책수달님. 마음먹은대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없다는 진실을 깨우친 이의 달관인지, 자신의 의미와 노력이 만든 준비에 인연과 우연이 만나 만든 필연이라는 결과인지 알 수 없는 "어쩌다 보니~" 라는 말에서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책과 커먼즈가 회복을 가져온다고 말한다. 독서모임을 하면서 재미가 생기고, 신뢰가 쌓이고,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느끼다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꺼낼 수 있게 되는 감성재활의 과정. 재활을 넘어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들 힘을 얻게 되는 희복의 경험을 말해주었다. 커먼즈 활동을 통해 '나'라는 사람이 조금씩 확장되는 것. 그리고 책방이 잔잔한 감성재활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어쩌다 보니]

둘. 주로 역사, 철학, 사회과학 서적만 읽고 소설은 보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자칭 쌉티 기한업수님은 작년 11월 독서모임 지정도서인 김금희 작가의 《대온실수리보고서》를 읽은 것이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냥 조용히 혼자 계속 읽어 나갔어요. 보여주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그대로 보고 그의 슬픔에 제 의견을 붙이지도 않고 그의 행동에 제 판단을 기준하지도 않고… 감성 재활이 된 건지 그날 밤에는 몽글몽글한 멜라토닌 분비가 과도해져서 이상하고 오글거리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성 작가의,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 소설을 일부러 찾아서 5편 정도를 읽고, 이어서 소설 30편을 더 읽으니까 마음에 몽글몽글 올라오는 것들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블로그에 글쓰기를 시작했다. <쓰기로 마음먹은 당신에게> 작가가 말하는 대로 "나는 글 쓰는 사람이다"라는 글귀를 블루투스 키보드에 붙여 놓기도 했다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하면서도 그냥 일단 한 50편까지 써보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고 마음먹었다는 그는, 글을 쓰는 것은 귀찮고 짜증나고 힘든 작업이지만 하고나면 뿌듯하고 내 새끼를 잘 키우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계속할 생각이라고 한다. [몽글몽글 감성재활]




셋. 모임의 "감성재활사"를 맡은 오냥이님은 8월 오후 햇살같은 밝은 에너지를 선물해 주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단순히 듣는 게 아니고 집중하면서 듣고 상대방의 소중함을 인정해 주는 경청이란 단어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1년여 전, 진중하기만 했던 독서모임에 함께 하며 밝은 에너지를 보태는 감성재활사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무리 밝혀줘도 그걸 거부하면 그 사람은 변화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의 이야기와 행동을 잘 경청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밝음을 받아들이고 변화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멤버들이 아름다운 눈으로 경청해 주는 것을 느끼며 자신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어떤 말이라도 끝까지 경청해줄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북작커먼즈 독서모임에서, 혼자만의 생각에 매몰되거나 고립되지 않도록 세상과 연결해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잘 들어주기]

넷. 새내기 세라님은 돌아본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 해준다. 돌아보니 자신도 모르게 부모님과 남편 등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존재로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러다 자녀의 독서 수업 덕분에 우연히 알게 된 이 곳 착한책방과 책수달님을 통해 다시 독서를 시작하게 되었고, 늘 휴식처럼 했던 TV시청도 수동적인 행위임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독서를 시작하고 생각과 이야기를 말하는 능동적인 행위를 하며 자유롭게 나의 것을 꺼낼 수가 있겠구나, 설레었다고 한다. 자신의 삶이 수동적이었다는걸 받아들이고 인정했을 때 밀려오는 슬픔, 그리고 현실 삶에서의 아픔과 힘듦이 여전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책을 읽으면서 자신을 느끼고, 자아를 깨우며 감정을 말하면서 천천히 내가 원하는 능동적인 나로 변하는 것을 느낀다고 한다. [나. 진짜 나.]

다섯. 이 모임의 원년 멤버인 오z님. 궁금했던 이 모임 이름의 의미부터 알려준다. Book(북)+作(작)+Commons(커먼즈) = 북작커먼즈라고.
"우리가 예전에는 '공유지'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간혹 '공동체'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뉘앙스가 조금 다른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커먼즈는 서로 활동을 하며 무엇인가를 나누는 동적인 활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밥을 같이 먹는 식사도 커먼즈고, 땅을 나눠 일구고 함께 나누는 것도 커먼즈죠." 나눔 소유하는 것에 그치면 1/n 이지만, 힘(노동)과 물질(소출, 생산물), 지식 그리고 마음을 나눈다면 나눈 것의 총합보다 더 불어나게 된다고 한다. 그렇게 "집단 덕성"이라는 단어를 소개해준다. 인간이 가진 선한 마음, 우리가 가진 그 씨앗을 발견하고 싹 틔울 수 있도록 하는 일 – 그것이 우리 문명이 멸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말한다. 아울러 토론을 통해 책 너머 세상을 넘나드는 경험을 하며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재활, 공감, 경청하는 과정을 통해 더 좋은 어른이 되어 가게 되리라는 믿음 또한. [더 좋은]

우리는 책 속 세상에 푹 빠지기도 하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기도 하며, 슬픔과 연민에 가득찰 때도 있다. 하지만 알고 있다. 나는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가고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라는 것을. "연극이 끝나면 모두들 떠나버리고 객석에는 정적만이 남아있죠. 고독만이 흐르고 있죠." 노랫말처럼 뛰었던 심장은 다시 차분해지고 분명하고 격렬했던 생각은 다시 흐릿해지고 식어간다. 다만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면? 독서와 일상 사이 함께 하는 그 어떤 공간에 좋은 것, 선한 것을 남겨둔다면? 필요할 누군가를 위한 것을 쌓아둔다면 어떨까? 크지 않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더 나은 어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책과 커먼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확장하고 감성을 회복시키며,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소망하는 그들을 응원한다. (익명)



## "대가속 시대와 사랑의 기술, 그리고 집단 덕성"

### 인문학 강연에 덧붙여

얼마 전 착한책방 독서모임 북작커먼즈에서 20세기의 고전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 (강주헌 옮김, 문예출판사, 2026)을 함께 읽었다. 이 책에서 프롬은 사랑이 호르몬에 반응하는 정념이 아니라 사려 깊게 실천해야 할 기술이자 능력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앎과 방법을 적극 제시했다. 아마도 이 점은 이 책이 1956년도에 처음 출간된 후 오늘날까지 사랑받으며 고전의 반열에 오른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오늘날 어떤 독자의 시선에서 볼 때 흔히 회자되는 사랑 혹은 관계의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조언처럼 들려 진부한 느낌이 들만한 요소로 작용할지 모른다.

그러나 작금의 시점에서 이 책의 가치는 단순히 사랑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것을 연마하여 실천하라는 개인적 차원의 가르침에 그치지 않는다. 프롬은 사랑의 실천이 문명의 구조적 측면과 관련되어 있다는 진단을 놓치지 않는다. 그는 책의 말미에 당대 전후 서구의 질서가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라는 신문명의 질서를 급속도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되고 있는 상황은 사랑의 실천과 양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다. 즉, 자본주의 체제는 기계적 공정 윤리와 이윤 추구만을 공리로 제시하는데, 여기에는 사랑을 실천할 여지가 없거나 매우 협소하다는 지적이다. "우리 사회 · 경제 조직 전체가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기반을 두고, 공정성이라는 윤리적 원칙을 통해서만 완화되는 이기주의 원칙에 지배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하고, 기존 사회의 틀 안에서 행동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192p) "우리 사회는 관리적 관료 조직과 직업 정치인들에 의해 운영된다. 사람들은 집단 암시에 동기를 부여받고, 그들의 목표는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이고, 이 자체가 목적이 된다. 모든 활동은 경제적 목표에 종속되고, 수단은 목적이 된다. 인간은 잘 먹고 잘 입지만, 인간 특유의 자질과 기능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은 없는 자동 장치가 된다. 경제 기계가 인간에게 도움을 주어야지, 인간이 경제 기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194-195p) 나는 그가 이러한 통찰로 책을 마무리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이 책이 오늘날 더 의미 있고 생명력 있는 고전으로 거듭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숙제를 부여하고 있는 듯한 의미의 고전으로 말이다.

이 책이 쓰인 1950년대는 오늘날 환경, 생태적 관점에서 제안된 인류세(Anthropocene)의 핵심인 대가속 시대(The Great Acceleration)가 시작된 시점이다. 2010년 무렵부터 이에 더욱 주목하는 일군의 논자들은 인류세라는 시대구분 용어의 기만적 측면을 지적하며 자본세(Capitalocene)를 제안하고 있다. 그 문제 의식은 명백하다. 지구의 생태적 균형을 크게 흔들어 오늘날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 재난을 야기한 주범은 포괄적이고 모호한 '인류'라기보다는 1950년대 이후 폭주해 온 자본주의 체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가속 시대의 자본주의 폭주가 오늘날 재앙을 야기한 근본적 이유가 어쩌면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 성찰하고 돌보며 아끼는 능력을 상실해갔기 때문이 아닐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에리히 프롬이 강조한 바, 애써 연마하고 수련해야 할 사랑의 기술일 것이다. 프롬의 책은 어쩌면 시대가 차차 외면하고 주변화하고 있었던 인간의 위대한 사랑의 능력을 일깨움으로써 예견되는 재앙을 막아보려는 처절한 시도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의 시도는 우리에게 단순한 감동을 넘어 실존과 생존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남겨졌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제는 개인의 '노오력'만으로 달성할 수 없다.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부대끼는 사회, 공동체, 커먼즈가 있어야 한다. 맹자(孟子)가 측은지심을 논하면서 우물에 빠지기 직전의 아이를 보고 무조건 달려가 구하는 사람의 예를 든 것처럼, 그 마음은 사건사고 뉴스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현장 속 행위에서 발현된다. 그러한 착한 마음의 실마리, 사단(四端)은 사람이 모여 함께 나누며 생활하는 현장에서만 나올 수 있다. 맹자는 바로 이 실마리를 계속 당겨 사람의 선한 마음을 계발하면 당시 수백 년간의 전란으로 멸망의 길로 전락해 갔던 문명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에리히 프롬도 이를 알고 있었다. "인간은 기껏해야 이웃을 나누는 데 만족하지 말고, 경험을 공유하고 일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사회적이고 사랑하는 본성이 사회적 실존과 분리되지 않고 융합되어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사회는 조직되어야 한다... 사랑의 발달을 상대적으로 배제하는 사회는 인간 본성의 기본적인 욕구와의 모순으로 인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195p)

이 작은 책방에 모인 선량한 분들은 혼자였다면 대가속 시대의 먹고 사니즘에 충실하며 소소한 소비의 기쁨을 누리는 데 만족했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함께 모여 커먼즈 활동을 통해 집단 지성 뿐 아니라 집단 덕성을 서로 북돋는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의 활동은 이래 봐도 저 멀리는 맹자, 가까이는 에리히 프롬의 문제 의식을 이어받아 실천하면서 명랑하게 함께 살아갈 터전을 만들어가며 대가속 시대에 균열을 내는 중이다. | 북작커먼즈 Oz (오승현)

## 평화 필터를 켜준 착한책방

### 웹개발자&디자이너 김학민 인터뷰

**이방인 삶의 옆방** 수사님, 사감님, 대부님, 형님. 그리고 이제는 커피 스승님. 한 사람을 부르는 이름마다 서로 다른 시절의 내가 살고 있다. 어떤 이름에는 대학 시절의 기숙사가, 어떤 이름에는 세례를 받던 날이, 또 어떤 이름에는 커피를 배우던 아침이 담겨 있다. 새 호칭이 더해져도 이전의 호칭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를 부르는 이름들을 따라가면 우리가 함께 지나온 시공간이 차례로 열린다.

첫 만남은 2015년, 서강대학교 벨라르미노 학사에서였다. 북한을 떠나 남한에 온 나는 여러해 공부를 겨쳐 이십대 후반에 대학에 들어갔다. 당시 예수회에서 운영하던 그 학사는 가정의 경제적 사정과 생활 여건을 살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입사 기회를 주었다. 나 역시 탈북 학생으로 정착해가던 형편을 인정받아 그곳에 들어갔다.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활의 한쪽을 받쳐주는 자리였다. 하지만 방을 얻었다고 낯선 삶까지 곧 익숙해지지는 않았다.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향을 떠나온 마음의 고단함, 학업이 매우 힘들던 시절이었다. 당시 학사의 사감으로 재직중이던 수사님의 방은 마침 내 옆방이었다. 그는 자주 나를 불러 무엇이 어려운지,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없는지 물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밥을 사주었다. 룸메이트와 친구들이 함께 모여 위로를 나누며 어울리는 날도 있었다. 그렇게 내 사정을 아는 사람이 옆방에 있다는 사실이, 하루하루를 견나는 데 힘이 되었다. 그 시간이 계기가 되어서 훗날 세례를 받았는데 사감님은 내 대부님이 되었다.

**이름에 남겨둔 시간** 대학 2학년 때 창업하며 기숙사를 나왔다. 그도 이후 수도회를 떠나 몇 년 뒤에 인연을 만나 결혼했고, 결혼식 날에는 내가 웨딩카를 운전했다. 함께 지내던 사이에서 가끔 만나 안부를 나누는 사이로 세월이 흘렀지만, 가끔 만나도 늘 타인의 말을 경청해주고 그 말을 가지고 삶의 생각에 함께 해주는 태도는 그대로였다. 수도생활을 할 때나 지금이나 삶은 비슷한 것 같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 책방과 카페를 꾸리며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 나는 그 말의 뜻을 조금 알 것 같았다.

**평화를 켜는 연습** 두 해 전 착한책방에서 마셨던 형님의 커피를 오래 기억했다. 정성껏 물을 붓던 모습과 놀랍도록 맛있었던 한 잔. 이후 여러 개인사로 몸과 마음이 힘든 시간을 조용히 보내느라 연락이 뜸했다. 우리는 지인의 장례식장에서 다시 만났고, 근황을 나누었다. 얼마 뒤 형님에게 전화가 왔다. 책방에 스테이로 운영하는 방이 있으니 하룻밤 쉬어가라고, 좋아하는 커피도 배우고 편히 지내다 가라고 했다. 남양주 수동으로 향하는 길, 머릿속에 갑자기 어떤 웹사이트의 검색 대시보드가 떠올랐다. 마치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계획할 때면 원하는 조건을 하나씩 고르는 필터처럼. 이번에는 내 하루에도 그런 필터를 걸어보았다. 스트레스는 끄고, 해야 할 일도 잠시 끄고, 머릿속을 맴돌던 걱정도, 마음의 짐도 모두 껐다. 대신 쉼과 커피, 맛있는 음식과 편안한 대화, 행복한 시간 버튼을 켰다. 그 조건 필터를 적용하니 평화의 문이 눈앞에 열리는 듯했다. 걱정거리는 여전히 있었지만 오늘 하루의 검색 결과에서는 빠져도 좋았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가벼워졌다. 가는 길에서부터 나는 쉬고 있었다.

**한 잔에 담기는 마음** 형님은 역까지 차로 마중 나왔고, 책방에서는 형수님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번에는 형수님이 커피를 내렸다. 물을 조금씩 정성스럽게 붓는 모습으로 완성된 한 잔의 커피를 건네받고 한 모금을 마셨다. 두 해 동안 최고로 기억해온 형님의 커피가 그날 자리를 내주었다. 집에서 배운 대로 따라 해보아도, 아직 형수님의 그 맛에는 닿지 못한다. 아침에는 형님에게 핸드드립을 배웠다. 십 년 가까이 혼자 커피를 내려 마셨지만, 물을 붓는 시간과 양을 그렇게 세밀하게 배운 것은 처음이었다. 수업은 맛에만 머물지 않았다. 마시는 사람을 생각하고, 경제적으로 만들고, 환경과 이웃을 살피고, 도구를 아끼는 태도까지 이어졌다. 자신이 마시지 않을 것을 남에게 내주지 않는다는 원칙이 특히 남았다. 내가 오래 알고 지낸 그의 성품이 커피를 내리는 순서 안에도 들어 있었다. 형님은 집에서도 커피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커피 도구들과 원두를 선물해 주었다. 그를 부르는 이름에 커피 스승님이 더해졌다.

**돌아와서도 남는 자리** 책방과 카페, 스테이를 꾸려가는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착한책방 홈페이지 제작을 맡게 되었다. 방의 모습과 이용 방법을 소개하면서, 이곳에서 경험한 환대도 담고 싶었다. 오래전 학사의 사감님과 학생이었던 우리는 이제 그 분이 만든 공간을 소개하는 일을 함께하고 있다. 요즘은 아침에 씻고 방을 정리한 뒤, 컴퓨터 앞에 앉기 전에 커피부터 내린다. 선물 받은 도구를 꺼내고, 보내주신 원두를 간다. 이십 년, 삼십 년이 지나도 이 일을 할 때면 형님이 떠오를 것 같다. 오래전에는 그 시절을 잊지 않으려고 세례명에 담았다. 이제는 잊지 않으려 애쓰지 않아도 아침마다 기억할 일이 생겼다. 착한책방은 내게 작은 영혼의 쉼터였다. 이곳을 찾는 이들도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잠시 꺼둘 수 있으면 좋겠다. 잘 먹고, 편히 자고, 이야기를 나누며 자기에게 필요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내가 수동으로 향하며 켰던 평화의 필터가 그들의 하루에도 켜지기를. 여기 오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바란다. | 김학민


책수달 & 학민


형님의 아침식사

## 우연히 시작된 맛있고 건강한 커피 이야기

### 예수회 최대제 로베르토 신부님 인터뷰

※ 착한책방에 커피 교육을 해주신 예수회 최대제 신부님의 커피와 영성이야기를 담은 인터뷰입니다. 2026년 9월 30일 착한책방에서 책수달이 진행했습니다.

**책수달** : 신부님 모처럼 방문해 주시고 또 인터뷰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착한책방 운영자들에게 핸드드립과 로스팅을 포함한 커피 교육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 정신에 따라서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신부님께서 어떻게 커피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안에 담긴 철학과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제 신부님** : 커피를 어떻게 시작했을까? **우연히, 그냥 우연히 커피에 대해서 알게 됐죠.** 아마 그때가 2006년인가 될 것 같은데, 그때 내가 운전해서 사람들을 태워서 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커피를 한 잔 달라고 그랬어요. 승합차를 타고 있었는데, 그분이 커피를 보온병에 넣어온 거에요. 그걸 한 잔 따라줘요. 근데 맛이 다른 거야. 그전에는 커피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삼박자 커피, 그게 커피라고 생각했죠. 커피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때 그분이 나한테 커피를 따라줬는데 커피 맛과 향이 좋고 부드럽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핸드드립이 어쩌고 뭐 이런 말을 해요. "핸드드립이면 나도 좀 배울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 어느 카페 사장님인데 나름의 무림의 고수 같은 분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나도 배울 수 있습니까?"하니까, 그렇다고해서 그분한테 가서 다섯 번을 배웠어요. 그렇게 해서 커피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죠.

**지금도 기본적인 생각은 정직하게, 솔직하게, 내 마음을 다해가지고 뭔가를 만들면 이게 다 사람들하고 다 통하는구나 싶어요.** 거짓이 들어가고 결과 위주로 해버리면 그런 정신이 없어져 버려요. 맛있다 그러면 더 맛있게 해주고 싶고, 또 커피 한 알이라도 정말 손으로 비비면서 감사하면서 하고, 그러면서 점점 철학이 형성돼 갔죠. 그리고 이 커피를 내리는 시간이 감사하잖아요. 커피를 내릴 수 있는 시간, 장소도 감사해요. 또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감사해. 내 팔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이 모든 상황이 나라는 존재가 감사한 거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커피 내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농민들한테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물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이 시간, 장소, 상황 하나도 무의미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커피를 하면서 점점 즐거워지는 거죠. 사람은 의미가 생기면 즐거울 수 있어요. 의미가 안 생기면은 즐겁지 않죠. 의미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아주 작은 데서 감사하는 것이 있으면 됩니다. 작은 데서도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 시간에 감사하고 장소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커피가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미국 가서 본격적으로 Q-그레이더 자격 과정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2개 과목을 완전히 마스터해야 Q-그레이더 자격증이 나오는데 12명 중에서 혼자 합격했으니까 소문이 났죠. 어느덧 사람들한테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SCA라고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협회예요. 지금은 어디 가도 내가 커피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고 또 나한테 배운 사람들이 여러 군데서 카페도 하고 있고 또 커피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어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기도 1시간 하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으로 커피를 내려요. 내가 있는 곳도 공동체니까 내가 안 먹더라도 다른 분을 위해서 항상 내려놔야 돼. 그 시간이 나한테도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가 따로 있고 커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책수달** : 앞으로 착한책방이 커피를 매개로 해서 어떤 공간이 되기를 바라시는지 얘기해 주시면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최대제 신부님** : 책하고 커피 한 잔 하고 분위기가 딱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독서라는 것도 그냥 책만 읽기보다는 커피를 한 잔 놓고 독서를 한다고 그러면 훨씬 감성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자극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커피 향기에 묻혀서 독서를 하고 싶다는 마음까지도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거기에 핸드드립이 잘어울리는 거지요.

**책수달** :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커피를 계속 해 나갈 텐데 맛있고 건강한 커피를 제공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을까요?


예수회 사제 / 만레사 영성센터 수도생활 제형학교 수련장
SCA Q 그레이더(커피평가 전문가)

고 지녀야 될 마음가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제 신부님** : 나는 커피 평가하는 그런 전문가인데, 내가 보면 커피 곰팡이 있는 것도 있고 덜 익은 것도 있는데 그거 내가 안 먹거든요. 내가 안 먹는 걸 남에게 주면 안 됩니다. 내 철학은 "내가 먹는 것을 남에게 준다." 그러면 나는 아침에 내 커피, 내가 만드는 커피는 곰팡이 하나 없고 덜 익은 거 하나 없고 완벽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또 생두 중 일부는 버려야 하니까 손실이 좀 있는 거죠. 그게 철학이예요. 한 알이라도 내가 정말 커피를, 커피답게 만드는 이런 게 철학입니다. 모든 것은 작은 데서부터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봐요. 작은 것이 중요해요. 커피 신선도를 유지하고 핸드픽 하는 것. 이것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 맛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걸 잡고 있는 게 철학입니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영성을 실천한 것이기도 하죠.

**책수달** : "내가 먹지 않는 커피를 남에게 주지 않는다"는 정신을 잘 부여잡고 해나가겠습니다.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 '알아차림'이란?

### 혜안서가 명상 칼럼

**혜안서가** 영성, 명상, 심리, 뇌과학 분야의 책을 함께 읽고 생각과 삶을 나누는 독서모임 입니다. 특정 종교에 제한되지 않는 열린지평에서 마음과 뇌과학 분야를 탐구합니다.

창간호에 이어 이번 제2호에서는 '알아차림'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중 많은 일을 그냥 지나치며 살아갑니다.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정작 '지금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를 돌아보고 느끼는 여유도 없습니다. 밥 때가 되면 밥을 먹고, 출근 시간이 되면 당연히 일터로 향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생활 속에서 정작 나 자신을 바라보고 알아차릴 여유조차 없다는 뜻입니다. 저도 역시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런 일이 당연한 삶이었고, 특별히 이상할 일도 아닌 나날이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문득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를 안다는 마음가짐은 어떤 상태일까요? 이의 시작은 '지금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 '나의 몸 상태는 어떠한가'를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바라보는 데서 출발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 자신을 마치 거울을 보듯이 나를 바라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마음은 지금 어떠한가?", "내 몸은 지금 어떠한가?",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하고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 마음 자체가 자신을 이해하는 좋은 시도가 되리라 봅니다.

여기서 저는 '알아차림'이라는 말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며 설명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마음을 느낀다고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따뜻한 마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 한평생이 걸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일이 쉽지 않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알아차림을 흔히 '마음챙김(Mindfulness)'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마음챙김'이라는 표현보다 '알아차림'이라는 말이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챙긴다'는 말에는 무엇인가를 잘 관리하고, 지키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는다는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소지품을 잘 챙겨라", "그 사람 잘 챙겨라"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챙김'에는 관리하고 붙잡고 유지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알아차림은 무엇인가를 붙잡으려 하기 보다는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자기를 아는 상황에 가깝습니다. 마음을 억지로 바꾸거나 없애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마음이 그러한 상태임을 알아차리고 그대로 놓아두는 일입니다. 즉, 마음을 편안히 놓아준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요약하면 '알아차림'이란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경험과 생각, 감정과 느낌을 명확하게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일입니다. 기쁘면 '기쁘구나', 화가 나면 '화가 났구나', 불안하면 '지금 불안하구나'라고 알아차리고 나를 아는 일입니다. 중요한 점은 그 감정을 판단하거나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않는 일이 됩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아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알아차림은 어떤 한 대상에만 집중하는 상태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나의 생각을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자로는 '念(생각 념)'이라는 글자가 알아차림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念'은 今(이제 금)과 心(마음 심)이 합쳐진 글자로, '지금의 마음'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알아차림'은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과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순간순간 나 자신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착한책방」과 인연을 맺고 함께하는 독자께서도 잠시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 하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어쩌면 좋은 삶은 나를 바꾸는 일에서 시작된다고 하기보다는, 우선! 지금의 나를 알아차리는 일에서 시작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혜안서가 뉴뉴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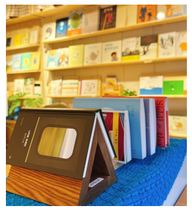
북작커먼즈 멤버들의 에세이입니다.

# 읽을수동

## 대체불가능한 아날로그의 매력

책방지기 이야기



모처럼 아내와 늦여름 여행을 다녀왔다. 장소는 속초와 고성. 속초는 신혼 여행때 갔던 곳이기도 한데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았어서 그곳을 중심으로 일정을 잡았다. 일단 날씨가 좋았다. 여름의 기운이 있지만 너무 덥지도 습하지도 않고 맑은 하늘에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서 나들이 하기에는 좋았다. 전날 저녁 새벽 2시까지 야근을 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출발했는데도 기분은 마냥 신났다.

이번 여행에서 받은 선물이 있다면 아날로그의 매력을 흠뻑 느낀 부분이다. 둘째날 고성에 있는 펜션을 예약했는데 깔끔하고 감성적인 숙소였고 책과 정원이 있고 아기자기한 분위기가 착한책방스테이와도 비슷한 면이 있어 궁금함과 기대를 가지고 체크인을 했다. 숙소에서 머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숙소에 턴테이블과 LP가 있었고 핸드드립 도구들을 원두와 함께 제공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TV가 없었다. 마침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통창 밖으로 빗소리와 함께 비오는 풍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레코드 음악을 들어보고 싶어서 턴테이블을 켰다. 그리고 원두를 핸드밀로 갈아서 천천히 핸드드립으로 내려서 향을 음미했다. 그 풍경과 시간에 멍하니 빠져들게 되었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주변에 책들이 눈에 들어와 읽게 되었다.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레코드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그 순간의 분위기가 너무 포근하게 나를 감싸주는 느낌을 받았다. '찐한' 아날로그 요소들이 주는 인간적인 무언가가 느껴졌다. 숙소의 시계가 건전지가 다 됐는지 멈춰있었는데 정말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아날로그만이 줄 수 있는 대체불가능한 감성과 편안함이 느껴졌고 주로 핸드폰 블루투스로 음악을 들었던 나는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음악을 들었던 건지를 반문해보게 되었다. 집에 돌아와서 오랫동안 베란다에 쌓아둔 오래된 턴테이블을 고치려고 알아봤다. 다행히 아직도 인쩝 서비스 센터가 운영되고 있었다. 의정부까지 턴테이블을 싣고가서 바늘과 레일 밴드를 교체하고 덮개 경첩을 수리했다. 그리고 너무 덩치가 커서 버린 스피커를 대신해 빈티지 스피커를 중고로 구했다. 그리고 아내와 세 운상가 종로음악사에 들러 사가지고 온 브루노 메이저 LP를 틀어보았다. 그때가 늦은 밤이었는데 음악에 취해서 새벽이 오도록 잠들지 못했다.

LP음악은 레코드판에 지문처럼 새겨진 미세한 굴곡을 섬세한 레코드 바늘의 진동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재현해내고 그것을 확장해서 듣는 방식이다. 그 소리의 원천이 물리적으로 몸을 움직여 소리를 만들어내는 라이브 음악과 가깝기 때문에 더 오리지널한 음악에 가깝게 들리는게 아닐까 추측해본다. 아날로그가 주는 자연스러움과 편안함, 포근한 매력에 눈을 뜨게 된 순간이었다. 사실 책방에서 하는 일 중에 책도, 커피 로스팅과 핸드 드립도, 텃밭도 어제보면 AI 시대와는 거리가 먼 오래되고 수고스러운 것들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 오래되고 수고스러운 것들이 가지고 있는 대체불가능한 매력이 있다. 삶을 보다 풍요롭고 향긋하게 해주고 무뎌져가는 감성을 일깨워주는 감성재활의 쓸모있는 도구들이다.

| 북작커먼즈 책수달(임준구)








## 쓰고 싶다!

박숙자, 『쓰기 교양』 북토크 후기




박숙자 서울대학교 전인교육원 교수님

쓰고 싶다! 는 생각이 든 건 [소설]을 읽은 뒤였다.

소설은 십수년 동안 읽지 않았다. 생활에 지치고 마음이 급해 소설 읽을 여력이 없었노라 변명하며, 주제별로 구분되어 나뉘 읽을 수 있는 책이 내 성향에 맞는 내 독서 취향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상은 게을러서 그런 것이다. 소설은 찬찬히 그리고 긴 호흡으로 채워가는 노력이 필요하기에 멀리 두고 쳐다보지 않은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소설을 읽어야 했다. 문제될건 없었다. 내가 안 읽었던 것이지 우리말로 쓴 글을 못 읽는건 아니니깐. 싫어하는 음식처럼 이건 취향 문제니깐 말이다. 그런데 읽어가면서 계속 눈을 찡그렸다. 뭐지? 뭐지? 하면서 말이다. 먼저 읽기가 불편했다. 그간 읽었던 인문학 책은 작가의 일관된 문체, 정확한 주제 전달을 위한 표현과 근거가 제시되는 것이 "기본" 인데 반해, 이 소설은 – 등장 인물마다 다른 말투, 왜 그런지 알 수 없는 행동들,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기 힘든 모습들이 내 기준 뒤죽박죽이었다.

"작품이 발표된 시대 배경을 탐색하고, 낯선 언어 표현에 대해서도 앞뒤 맥락을 고려하며 의미를 추론해야 한다. (중략) 텍스트에 흩어진 정보를 찬찬히 조합해서 의미의 공백을 채워가는 노력이 필요하다."(52~54쪽, 부분)
영화나 해외 드라마는 그렇게 열심히 봐왔지만 왜 소설 읽기를 그렇게 멀리 했는지 알게 되었다. "찬찬히" 그리고 "채워가는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 모습을 제대로 그려내려면 긴 호흡으로 찬찬히 그리고 이야기를 놓치 않고 끝까지 잘 들어봐야(읽어야)하지만, 그간 짧은 글과 명쾌한 문장만 읽어와서 그런지 "독서 지구력"이 바닥이었다. 노력하기 싫어 편한 것만 찾아 다닌 탓이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었다. 정확하게 나는 나로서 소설의 주인공을 바라볼 뿐이었고, 그의 감정을 해석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러니 계속 질문만 하고 있었다. – 자세하게 말해보렴. – 시간 순서대로 차근차근 말해보렴. – 어떤 감정이었는지 조금 더 정확한 단어로 표현해주렴. 일단 내가 너를 파악해야 그래야 네 이야기를 더 잘 들을 수 있지 않겠어? 소설 속 화자가 내 질문에 답을 해줄리 만무하니 계속 혼자 되묻는 말만 했던 것이다. 뭐지? 뭐지? 하면서.

"공감 empathy은 주어진 정보를 종합해서 그 인물의 위치에서 사유하는 '상상력'이다. 그에반해 동정 sympathy은 나와 타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면서 '나'의 입장과 위치에서 '타인'을 이해하는 방식이다."(54쪽) 공감하지 못했다. 아니 "공감"이란 것을 할 자세가 없었다. 나는 계속 내 자리에서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왜"인지 찾으려, 찾아 분석하려 종이와 펜을 든 채로 말이다. 공감하지 못하니 어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낮에 더 읽지 못해 덮은 책을 한 밤에 다시 펼쳤다. 방은 조용했고 커피도 준비되어 있었으며 나는 천천히 읽었다. 왜 그런 입장일까, 왜 저런 말을 할까? 되묻지 않고 그저 조용히 듣기만 했다. 그리고 자세하게 보기만 했다. 보여주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그의 슬픔에 내 의견을 붙이지 않고, 그의 행동에 내 판단을 기준하지 않고, 그의 말에 내 언어를 섞지 않았다. 새벽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때까지.

'쓰고 싶다'는 마음이 문득 들었을 때, 다행히 미루지 않고 '썼다'. 두 달여 동안 독서 후기 10편을 써서 개인 블로그에 게시했다. 구멍 많은 문장에 빼죽 빼죽 거무튀튀 볼품없고 색 없는 글이지만, 쉽지 않았다. 더 오래 혼자 있기 위해 더 적게 자야 했고, 더 많이 생각하기 위해 더 많이 읽어야 했다. 겨우 두어달 짧은 독서 후기 몇 편 썼을 뿐이지만, 여러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어렵다', '마음에 안들어', '이상해', '지루해' 쓰는 과정에서는 부정적인 자책이 대부분이었지만,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글을 닫았을 땐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뿌듯하다', '소중한 내 글, 내 생각, 내 말들', '쓰길 잘했다', '조금 더 잘 써보자!'

[쓰기 교양] 이 책을 접했을 때는 계속 더 써보기로 목표를 세웠던 참이었다. 슬그머니 '나 왜 쓰고 있지?'라는 물음이 올라왔지만 더 쓰고 생각하기로 나중에 판단하기로, 지금은 "그냥 더 쓰기"로 마음 먹었던 때였다. 독서 후기든 다른 그 무엇이든 일단 쓰자. "나는 글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짐 하면서 말이다. 쓰면서 경험한 어렴풋한 느낌을 [쓰기 교양]에서 언어로 엮어 주었다. 안경 쓴 듯 선명하게, 옆에 바짝 귀 기울인 듯 또렷하게. | 북작커먼즈 기한 (엄진수)

## 나의 뿌리, 한국의 전통문화로 키우다.

나의 뿌리, 나의 꿈 이야기



나의 뿌리, 부모님이시다.
나의 뿌리는 약했다. 아마도 부모님의 뿌리도 약했을 것이다. 아빠는 항상 방황을 하셨고 엄마는 혼자서 책임을 다 지셨다. 엄마가 가정에 대한 책임, 사업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동안 나는 거의 혼자서 자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모님이 바라는 모습대로 자랐다. 공부를 잘하고, 미술대회에 나갈 때마다 상을 타오고, 부모님이 어렵때 못하셨던 걸 내가 대신해드렸다. 하지만 나의 진짜 모습은 공부는 하는 척만 했고,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된 무기력한 생활은 미대 인테리어디자인과를 입학 후에도 이어졌다. 그러다 2학년 전공필수 과목 중에 '한국전통건축'이라는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내면의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을 느꼈다. 수업시간마다 마음이 단단해지고, 자랑스러워지는 시간들이었다.

한국 전통건축은 의미 없이 지어진 공간이 없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풍수지리를 적용하여 좋은 자리를 찾아야 했고,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기후 적응과 생활실용성을 따졌다. 그리고 신분, 성별, 윤리에 대한 의미가 내포된 공간을 지었다. 조선시대에는 집안에 신이 있다고 믿어 각 공간마다 신을 모시는 풍습이 있었다. 이는 집에 사는 사람들의 몸과 정신이 건강할 수 있도록 집에 대한 관리를 잘 하게 하는 풍습이었던 것이다. 신을 모시는 곳은 깨끗하고 정갈해야 했을 테니까. 신께 누군가가 잘 되게 해달라고 빌지, 나쁘게 해달라고 빌지 않는다. 사실 나는 우리나라 전통건축은 흙으로 지어진 보잘것 없는 집 같아서 마음에 들지 않았었다. 크고 화려한 서양의 건축과 비교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옥은 철학적이고 과학적이며,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보게 하는 민간신앙까지 내포된 웅골찬 문화였던 것이다. 그래서 전통문화에 자부심을 느꼈고, '한국전통건축' 수업으로 마음에 생기가 돌았다.

대학 졸업 후 조경과가 있는 대학원을 가라는 부모님의 조언대로 지원을 했는데, 그곳에 '한국전통조경'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계셨다. 역사와 관련된 모든 수업이 나를 살게 했지만 무기력함은 계속 되었고, 졸업도 늦어지니 공부와 연구를 계속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겨우 졸업을 하고 둘째를 임신하게 되면서 10년 동안 공부에 대한 열정도 희망도 접었다. 그러는 사이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와는 손절을 했다. 그런데... 죽어도 싫던 조경일을 하고 있다. 지금 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어찌보면 내게 조경사업은 '한'이 서려있는 일이다. 나의 어린 날 외로움의 상처와 아픔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경 일로써 내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나의 상처들이 승화되어 가고 있음을 느낀다. 특히 전통문화에 대한 믿음이 나를 일깨우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다고 말 할 수 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북작커먼즈'를 만나고, 다시 전통문화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책 읽기와 글쓰기를 시작으로 공부 열정과 호기심을 깨우는 중이다. 지금 조경과 전통문화를 접목하는 공부와 연구를 꿈꾸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선한 '한'의 문화를 알리고 싶다. 나의 상처를 남에게 돌리는 것이 아닌 나를 바라보는 힘으로 돌려야 세상이 건강해 질거라 생각이 든다. 아니, 세계가 평화로울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인다. 한국전통문화의 비움과 흐름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 나아갈 것이다. | 북작커먼즈 세라 (최세란)





독서토론을 마치고, 각자의 소감을 정리한 것입니다.

7월




### 커먼즈의 재생

지은이 | 우치다 다쓰루
출판사 | 유유

## '커먼즈의 재생'을 읽고

독서토론 독후감_7월

<커먼즈의 재생>을 읽으면서, 자율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가 학생들을 제압하기 위해 대학교 학비를 올려서 스스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부모님에게 의지하게끔 했다는 내용이 내게 기억에 오래 남았다.

만약 일본의 그 젊은이들이 어른으로서의 배움의 자율성을 누렸다면, 지금쯤 미국 못지않은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율성은 사람의 깊은 내면의 잠재력을 깨우는 것 같다. 하지만 사람이 자율성이 박탈당하면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나라 어른된 젊은 사람들의 내면의 아픔에 대해 이해가 되는 부분이있다.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들의 부모들에 의해 자율성을 뺏겼다.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고자 하는 선택의 자율성을 뺏겼다고 보인다. 특히나 경제적으로 넉넉한 부모에게서 자란 자식은 오직 공부만이 선택지이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자식들을 자신의 선택지의 폭이 넓어진다. 용돈도 스스로 벌어야 하고, 학비도 스스로 벌어야 하는경우가 많다. 여러가지 일들을 해야하고, 그 속에서의 경험들이 더 많은 배움을 얻는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도움을 받은 자식들 보다, 억지로라도 자율성을 발휘한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더 감사함을 느끼는경우가 많은 걸로 보인다.

나도 오늘 아침에 딸의 자율성을 침범하고 있었음을 느꼈다. 아침밥을 먹고싶지 않은 딸에게 밥을 많이 주고 다 먹기를 바라고 강요하는 내 모습이, 결국 딸의 선택을 박탈하려는 나의 모습임을 느꼈다. 딸아이가 밥을 안 먹고 학교에 갔을 때, 본인이 배고픔을 느낀다면 다음날 스스로 밥을 먹게 될 것이다. 자신의 선택에 어려움을 느끼면 결국 알게된다. 왜 먹어야하는지. 그런데 나도 모르게 아이의 선택을 박탈하고있었던 것이다.

제안을 하지만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게 하는 것이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부모로서 아이의 자율성을 허용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사람으로 생각이 된다. 그리고 아이의 어려움도 바라봐줄수 있어야 하고 아이의 몫임을 인정해야 하는구나 싶었다. 나는 엄마의 관점으로 후기를 쓰게 되었다. 그리고 자율성을 박탈 당해 본 삶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후기를 적었다.

| 북작커먼즈 세라 (최세란)




8월




### 사랑의 기술

지은이 | 에리히 프롬
출판사 | 문예출판사

## Love wins all

독서토론 독후감_8월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서는 '사랑' 하면 떠오르는 남녀의 성애적 감정 외에도 같은 인간으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종교로서의 사랑과 자기 자신과의 사랑 등을 모두 아우르고 있었다. 사랑을 '남녀 사이의 끌리는 감정'이라는 편협한 범위로 생각해온 것에 대하여 우리는 전쟁 이후 사랑을 주제로 하는 자극적인 음악과 영상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근거로, 미디어가 전쟁의 고통과 고독감에서 빠르게 벗어나고자 사랑이라는 단어를 욕망과 쾌락의 감정에 예속시켜 배포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누었다. 이 때에 자리잡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은 감정을 한데 뭉뚱그려버리기에, 감정의 이름을 세분화해서 재정의하면 좋겠다고도 생각했다. 우리는 이미 '연모하다', '은애하다' 등 다양한 표현이 있지 않았던가.

사랑의 범위는 이제 광막해졌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기술인가? 사랑이 기술이라면 우리는 기술을 익히기 위해 지식을 쌓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성적 신념을 갖고, 훈련하고 집중하고 인내하며 능동적으로 노력해야한다. 앎, 돌봄, 책임, 존중... 사랑은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능동적인 관심이다. 사랑은 받는 것, 받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해왔던 나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었다. 누군가가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을 받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 적은 있어도, 내가 적극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오늘날의 사랑은 겁에 질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심한 듯 보인다. 사회적으로 사랑이 붕괴되어 가고 있는 요즘,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사랑을 찾아야할까. 프롬은 '인본주의적이고 공동체주의적인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사랑이 보편적 현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북작커먼즈'가 추구하고자 하는 '건강한 커먼즈'의 지향점과 맞닿아 있기도 하다. (이 때 인간본성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믿음인 '신념'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예전 책에는 '신앙'이라는 단어로 번역해놓은 것이 흥미로웠다.) 그렇기에 앞서 함께 읽은 <커먼즈의 재생>의 후속 책으로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예전의 나라면 이해할 수 없었을지도 모를 내용을 딱 지금 커먼즈와 더불어 만나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역시 책과의 만남도 타이밍인가보다. (책 추천해주신 세라 쌤 칭찬합니다.)

아이유의 노래 중에 'Love wins all'이라는 노래가 있다. 이 노래 또한 연인들만의 이야기만 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형오의 시대에서 끝까지 사랑을 하고자하는 존재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이 있다고 믿는 존재들. 프롬이 말하고자 하는 이 넓은 개념의 사랑과 이 노래에 담긴 사랑이 같은 사랑이라면, 정말로 사랑은 세상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힘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능동적으로.

| 북작커먼즈 오냥이 (오현경)




9월




### 세상에서 가장 따듯한 초록 (제주 이시돌 목장 이야기)

지은이 | 김태훈, 준 초이
출판사 | 남해의봄날

## 사랑의 실천이 가져온 기적

독서토론 독후감_9월

'따뜻'과 같은 뜻이지만 그보다 여린 느낌을 '따듯'으로 적는다 한다. 추운 날 급히 불 지펴 어서 온기 돌게 하는 '따뜻'아닌, 가을 오후 멀리서 비춰오는 가장 기~인 햇살 같은 느낌이다. '세상에서 가장 따듯한'. 그런데 '초록'이라는 색과 '따듯'의 느낌은 잘 연결되지 않는다고? 제주 성 이시돌(St. Isidore) 목장에 뿌려진 사람들 이야기를 듣게 되면 자연히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 가장 따듯한 초록' 느낌을.

9월에 함께 읽은 에리히 프롬 <사랑의 기술(The Art of Loving)> 이론 수업에 이어, 제주도로 현장학습을 떠났다. 주제는 이번에도 사랑. 이끌어주는 분은 아일랜드 출신 가톨릭 사제 임피제(한글이름, Patrick James McGlinchey 이름 첫글자(P. J. M.)를 우리식으로 성을 앞으로 보내고 (M.P.J) 한글 발음대로 읽은 이름) 신부님이다.
그런데 이 신부님은 좀 바쁘다. 어서 어서 하자고 재촉한다. "프롬 쌤은 좀 딱딱했지?(독일어 이름 가진 사람들이 괜히 진지해) 내가 쉽고 빠르게 알려줄게. 들어봐봐. 프롬 형이 말한건 사랑(love)이 아니라 사랑하라(Loving)잖아. 사랑은 능동적으로 주는 것이라고. 그러니 어서 나가 주면 돼. 더 고민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것만 알고 그냥 하면 돼. 이것저것 셈하고 헤아리고 고민하지마.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다 괜찮아, 그 실수와 실패도 사랑하는 ~ing 이니깐. 중요한건 지금 네가 하는거야. 사랑. (어때? 아일랜드 사람은 다르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1953년 제주도에 온 젊은 외국인 신부가 60여 년간 제주 주민들의 자립과 돌봄을 위해 헌신하다 2018년 선종하고 제주에 묻혔다.

그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걱정했으며, 어떤 고민에 힘들어 했는지는 잘 모른다. 다만 내가 책에서 읽은 그분은 이렇게 보여주셨다. 함께 하라. 구하고 청하라. 함께 하라. 구하고 청하라. 또 함께 하라. 다시 구하고 청하라. 늘 함께 하라. 늘 구하고 청하라. 함께 하기 위해 몸을 던져 방법을 찾고 평생을 쏟아 구하고 청하는 신부님의 모습에 감동하였다.

계속 함께 했을 때 자신이 감내해야 할 고통과 어려움을 분명 알면서도 계속 함께 하는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 실수와 실패를 겪으며 견딜 수 없는 인간적인 고통이 있었을텐데 어떻게 참고 다시 구하고 청하셨을까. 인색하고 옹졸하며 사랑도 모르고 사랑하기는 더더욱 몰라 늘 인간적인 걱정과 내가 가진 것만 생각하는 나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프롬은 말한다. 실천하라고. 임피제 신부님은 보여주셨다. 사랑의 실천이 가져온 기적들을. 내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나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 북작커먼즈 기한 (엄진수)



## 북작커먼즈 멤버들의 책사줄게 프로젝트 2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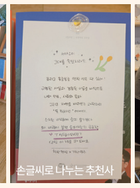

북작커먼즈의 집단 덕성이 빛나는 <책사줄게 프로젝트 시즌2>입니다.
우리 구성원들이 나누고 싶은 책을 친절한(!) 설명과 함께 특정 연령대의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만났던 좋은 책을 누군가와 나누면 어떤 좋은 인연이 생겨 책이 사람을 만들고 우리 커먼즈가 더 풍부해질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선한 영향력이자 사랑의 실천 아닐까요? | 북작커먼즈 오z (오승현)







착한책방에 배치된 모습


손글씨로 나누는 추천사


세리&오냥이 손글씨 공장(?) 가동중!

### 싯다르타

지은이 | 헤르만 헤세 출판사 | 민음사




제목만 보고는 고타마 싯다르타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이 평범한 일상 안에서 어떻게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전하는 이야기로 다가왔습니다. 삶의 길,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20대분들에게 많은 통찰과 몰입의 즐거움을 안겨줄 아름다운 작품으로 이 책을 선물합니다.

착한책방 X 북작 책수달

###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

지은이 | 나탈리 골드버그 출판사 | 한문화




글쓰기의 새로운 관점을 던져줄 책으로 기대합니다. 일상안에서 글쓰기가 마음의 놀이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점을 열어주는 책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음을 담은 글쓰기에 관심이 있는 30대 분들에게 선물합니다. 한문장 "글쓰기는 재갈을 물리지 않은 야성이 숨쉬는 공간이다."

착한책방 X 북작 책수달

### 오디세이아

지은이 | 호메로스 출판사 | 현대지성




설명이 필요없는 작품입니다. 더구나 요새 너무나 핫한 작품이지요.영화의 이야기를 너머 더 깊이, 더 멀리 오디세이아의 세계를 탐험하고 싶은 20대분들에게 선물합니다.

착한책방 X 북작 책수달

### 사랑의 기술

지은이 | 에리히 프롬 출판사 | 문예출판사




우리에겐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사랑은 상품화되고 소비되는 사랑입니다. 책임감이 없고, 개별습니다. 지금의 젊은 사람들이 자극적인 사랑이 아닌, 사랑이란 의미를 배우고, 사랑이 어떻게 지속되는지를 알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책 속의 관점으로 세상을 봤을 때, 세상에 대해 좀 더 따뜻하게 볼 수 있길 바라며, 30대분들에게 선물합니다.^^

착한책방 X 북작 세라

### 죽음의 수용소에서

지은이 | 빅터 프랭클 출판사 | 청아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수용소라는 끔찍한 공간에서, 자유에 대한 의지와 존엄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살아 돌아온 빅터 프랭클의 자서전입니다. 삶의 의지만 있다면 시련은 나를 더 깊이있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답답하고 고단한 20~30대분들에게 선물합니다.

착한책방 X 북작 오냥이

### 자기 앞의 생

지은이 | 에밀 아자르 출판사 | 문학동네




무슬림 고아 모모와 창녀 출신 유태인 로자 아주머니, 누군가는 밑바닥 인생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누구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고 함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모진 세상에서도 사랑의 온기는 전해집니다. 다 읽고나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사람은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나요?" 세상이 낯선 20대분들에게 선물합니다.

착한책방 X 북작 오냥이

신간

###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지은이 | 김상욱 출판사 | 동아시아




흐리고 몽글몽글 연한 선은 딱 싫어! 규명된 사실과 검증된 이론을 바탕으로 나와 인류, 사회와 문화 그리고 자연을 바라보는 과학자의 "뚝 부러지는" 에세이. 스치는 바람에 슬피 울기보다 왜 바람이 불면 슬퍼지는지 궁금한 T 성향이라면? 당장 이 책을 펴 보세요.

착한책방 X 북작 기한

### 천문학자의 쓸모없음에 관하여

지은이 | 지웅배 출판사 | 쌤앤파커스




매일 마주치는 태양과 달. 너무 익숙한 우리 세상이지만, 사실 너무 먼 그래서 너무 모르는 다른 세상 이야기. 밤하늘 너머 아득하게 넓은 우주를 바라보는 천문학자의 "우주 감성" 에세이. 신기하고 생경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그리고 소소하고 겸손하게 건네준다. 읽어봐라! 가 아니라 이야기를 '건네주는 듯' 재미있게 잘 쓴 책. 연인에게 신기한 별 이야기 한 편 들려주고 싶다면?

착한책방 X 북작 기한

### 책읽기의 끝과 시작

지은이 | 강유원 출판사 | 라티오




세간에는 유명한 지식인, 철학자, 비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왠지 그분들의 책이 선뜻 손에 집히지 않습니다. 일부러 사서 보는 경우는 더더욱 없습니다. 강유원 선생님은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아도 제가 존경하는 철학 선생님입니다. 가끔 책을 사 읽기도 합니다. 이 책은 저도 아직 못 보았지만 여기 나오는 많은 책의 서평을 읽으며 그 책들을 아주 천천히 읽어가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여기 나오는 수많은 책을 천천히 읽고 싶으신 20~40대 분들께 드립니다.

착한책방 X 북작 오z

### 어나더 경제사 1.2

지은이 | 홍기빈 출판사 | 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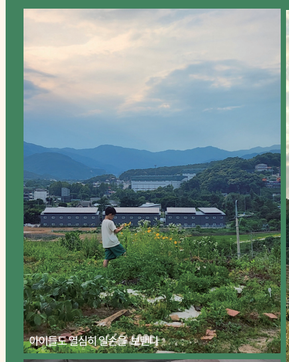



역사의 여러 분야에서는 통상의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고 대안을 보여주는 수정주의 사관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경제사에서는 수정주의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외에 대안을 상상할 능력이 차츰 약화되어가는 상황을 방증하겠지요. 홍기빈 선생님의 이 책은 오늘날 보기 어려운 수정주의 경제사를 흥미진진하게 풀어냅니다. 화폐와 자본주의, 산업화의 역사를 쫌 제대로 알고 싶은 20~30대에게 드립니다.

착한책방 X 북작 오z






아이들도 열심히 일손을 보탠다 :)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담소시간^^



수동와밭에 올 때마다 쿠르은 매번 갱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생태화장실 전경
생각 외로 쾌적하다는 평이다.



생태화장실 & 생태 퇴비간 간판제작


이름표 대신 애플민트와 펜넬, 메리골드로 장 식하고 치열스!


매년 구독중인 토종씨앗들


장마가 오기 전 급히 감자수확. 제법 알이 굵다.


직접 만든 허브입퓨즈오일을 넣은 샐러드와 갈바스


목우가 권하지 마자 부리나케 볶은 닭갈비


함께 음식을 해먹으며 더욱 돈독해지는 와밭커먼즈

## 수동와밭 그리고 와밭커먼즈

경기도 마을 종합사업을 통해서 2024년 착한책방 옆 주차장 아래 100여평의 땅에 "수동와밭"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수동와밭커먼즈"가 구성되었습니다.

퍼머컬쳐 강좌, 생태화장실 만들기, 허브 생활제 만들기, 벽돌화로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마을종합사업을 마무리 하였고, 그 이후에도 공동체은행 빈고와 연대하여 공유지로서 자생력을 갖추고 공동텃밭 운영, 허브를 이용한 생활제 만들기 등 역동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여 종의 허브와 다양한 채소류가 자라고 있으며, 생태화장실과 퇴비간, 빗물저장소의 운영 및 고물을 모아 팔아서 기금을 마련하는 등 생태 · 자원 순환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직접 기른 허브를 넣어 만든 아로마 왁스타블렛


쓰일새가 많은 허브입퓨즈 오일



목공체험 - 나만의 독서대 만들기

## 흙 묻은 손이 마음을 어루만지다

### 와밭 에세이 1 - 텃밭의 쓸모

#### 정원의 쓸모

지은이 | 수 스튜어트 스미스
출판사 | 윌북




와밭에 참여했을 때의 내 마음가짐은 사실 특별할 것이 없었다. 나에게 텃밭이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첫발을 내디뎠을까? 3년이 지나고 난 지금 그 당시를 돌이켜보니 나의 관심은 식물이나 허브보다 '사람'에게 더 향해 있었던게 아닌가 생각해본다.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다는 간절함이 컸던 것 같다.

왜 그토록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 아마도 사람으로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지 의문도 있었지만 적지 않은 기대를 품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면 두근두근거리는 심장 소리가 타고 올라와 맴도는 그 시간들을 잘 버텨낸 것 같다. 와밭에서 나는 주어진 일들을 해내면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들이 참 고맙고 편안했던 것 같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는 꿈틀거리며 많은 활동에 참여를 했었다. 단순했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았던 일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가 아니고자 마음속으로 여러 번 말하는 연습을 하면서 정신을 부여잡고 약을 먹고... 말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았던 시기였던 것 같다.

허브는 안정감을 주는 심리 치료제처럼 다가와 이제는 늘 항상 함께하고픈 식물이기도 하다. 함께 하고픈 식물이 생겼다는 건 함께 하고픈 사람 또한 생겼다는 건데... 사실 잘 모르겠다. 내 옆에서 땅을 파고 풀을 뽑는 선생님들~ 다들 묵묵히 온몸에 땀이 비오듯이 내려도 눈이 마주치면 씨~~익 멋쩍게 웃는 모습에 편안함을 느꼈다. 아무말 없이 침묵의 명상을 하듯 그렇게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와밭 텃밭 노동은 침묵으로 아무생각 없이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싶다. 풀 뽑는 소리, 흙을 파는 소리, 실천적 노동의 삶에서 오는 고단함이 나의 내면에 쌓인 울화통과 스트레스를 조금씩 풀어주는 것만 같았다.

바람에 흔들리면 흔들리고,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에 온 몸을 내맡기고 오로지 나를 받아들이는 시작이자 꽁꽁 숨겨놓았던 그늘진 모습 또한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참으로 신기한 게 올해 심은 식물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다음 해에 싹을 틔워 꽃을 피우고, 다음 해면 더 튼튼하고 풍성하고 늠름히 자라나는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는 마음 또한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다. 더운날 풀 뽑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어렵지만, 함께하는 공동체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느끼며, 탓하지 않는 서로의 마음 속에서 너그러움과 배려를 느끼며 관계에 대해 새롭게 정립해 나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나의 마음과 비슷한 책 한권을 소개하고자 한다.

수 스튜어트 스미스, 『정원의 쓸모: 흙 묻은 손이 마음을 어루만지다』, (윌북, 2021) 라는 책이다. 정원의 쓸모.....나의 쓸모는...ㅎㅎㅎㅎ

이 책은 현재 절판이지만 만성적인 불안과 트라우마, 우울증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받는 이들이나, 바쁜 현대인의 고된 삶에 치여 에너지가 고갈된 번아웃 상태에 놓인 사람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이다. 이 책의 저자는 마법 같은 특별한 위안이 바로 정원에서 활동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텃밭 활동을 통해 정신과 생체리듬이 되살아나는 경험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생각의 정리를 할 수 있었다. 와밭에서 치유의 허브같은 분들을 만났다면, 이 책에서 만난 문장은 그 치유의 이유를 알게 해주었다.

"식물들은 연약하면서도 긍정적인 것 같고, 사계절을 버텨요. 여기 남아서 잘 살고 있잖아요. 식물을 통해서 나의 취약성이 저주가 될 필요는 없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정원 돌보기를 하면서 그 충격에서 벗어나 인생을 더 많이 이해하고 있어요."(121~122p)

"원예는 개인이 흙과 가까워지고, 대자연과 가까워지고, 아름다움과 가까워지고, 성장과 발전의 수수께끼와 가까워지는 활동이다. 정원에서 의미 깊은 친밀감을, 다른 사람들과 관련되지 않는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인식했다." (103p) "흙이 아주 단단해서 변화를 이루려면 힘든 육체노동이 필요했는데, 그런 분투는 분노와 좌절감을 해독하는데 좋다."(103p)

"원예 치료는 사람마다 다르고 개별적 인생사나 문제들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모종 돌보기는 자신이 예전에 얼마나 돌봄을 받지 못했는지를 깨닫게 해줄 수 있다. 잡초 뽑기는 유독한 감정을 내보내는 내적 과정을 추동할 수 있다. 퇴비 더미를 만드는 일은 나쁜 일 다음에 좋은 일이 올 수 있다는 믿음을 키워 줄 수 있다."(271p)

"농작물을 키우고 싶지만 땅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더는 자기 정원을 관리하지 못하는 정원소유자와 연결해준다. 정원을 공유한다는 느낌은 새로운 즐거움을 안겨주고 우정의 형성은 노년의 고립감을 물리치는데 도움이 된다. 정원소유자들이 누리는 삶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체 활동 수준이 올라가고 불안과 우울 증상이 줄어들었다. 정원은 늘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는 거기서 다른 종류의 앎을 경험한다." (245p) | 와밭커먼즈 평온하게 (정미정)

### 민트~ 민트~ 초코민트요~

### 와밭 에세이 2 - 식물이 주는 행복



성공했습니다. 뿌리가 내려 왔습니다.

수동와밭에서 꺾은 초코민트를 아주 작은 유리병에 꽂았습니다. 싱크대에 두고 계속 눈길을 주었더니 연하게 약한 모습의 흰 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얼마나 흐뭇한 지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좀 더 지켜봅니다. 물론 물을 자주 넣어주고 무심한 척 자주 바라봅니다. 뿌리가 몇 가닥 더 늘어났습니다. 이쯤에 초코민트가 흙 맛을 봐야 초코민트답게 살아 나갈 거라는 생각이듭니다. 베란다에서 조심조심 흙을 담고 살살 심은 후 분무기로 흙을 살짝 적셔 줍니다. 물을 확~ 주면 놀라거나 흙이 너무 무거워질 것 같아 분무기를 사용합니다. 하루 이틀 후에도 잎이 싱싱하고 생생합니다. 역시 수동 와밭의 초코민트는 잡초들과도 많이 싸워봐서인지 튼튼하게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지금도 잘 크고 있습니다. 가만히 바라보면 좋은 기운이 퐁~퐁~올라오고 마음이 뿌듯합니다.

아침에 햇살가득 베란다에서 손으로 살짝 건드린 초코민트 향기는 정신을 번쩍, 머리를 맑게 해줍니다. 식물이 주는 에너지, 이 행복이 착한책방 수동와밭 커먼즈 덕분에 아주 가까이 제 곁에 있습니다. 이제 귀하게 자란 초코민트 잎을 몇 개 뜯어 따뜻한 차를 우립니다. 목 넘김이 확~사해집니다. 에너지 충전하며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와밭커먼즈 진진 (박진희)

### 어른같은 애기똥풀

### 와밭 에세이 3 - 잡초 잡담 두번째

꺾으면 애기똥빛을 닮은 노란즙이 나와서 '애기똥풀'이라 지어졌다는데, 이름에 똥이라니 진짜 너무하지 않나... 노란 것, 꼭 애기똥만 있진 않잖아요 예?!
이름에 '똥'이 들어가면 장수한다고 사람 이름도 개똥이, 말똥이라고 지어주던 시절이 있었다. 이름에 똥이 들어가서 그런지 정말 무병장수하는 애기똥풀은 그 오래 전부터 즙나게 버티고 버텨서 오늘날에도 전국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마을 인근, 밭 주변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훌륭하고 의젓한 잡초가 되었다.

나는 애기똥풀의 즙을 손톱에 칠하는 것을 좋아한다. 노란 즙을 칠하면 손톱이 노랗게 물들다가 곧, 어? 아.... 똥색이 된다(!) 아, 그래서 애기똥풀이던가! 그런데 주의할 점! 약한 독이 있어서 칠한 손톱은 핥아먹으면 안된다. 많이 쓰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이미 먹어보았읍니다...)

노란 십자화형 꽃이 지고나면 조금 흉물스럽게 생긴 씨가 맺히는데, 이 씨앗에는 개미가 좋아하는 '엘라이오솜'이라는 단맛나는 지방산이 들어있다. 개미들이 이 씨앗을 맛있게 먹을 요량으로 허겁지겁 집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번식을 하게 되는 것이다. 기특하지 않나. "애기똥풀 아니고 어른똥풀...할래?"라고 말하고 싶지만 어른똥이라니 그건 좀 아니니까 취소. 그나저나 개미에게 간택되기 위해 식물들도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오늘 당신은 어떤 노력을 하였나요?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엘라이오솜을 1g도 만들지 못하는 쓸모없는 인간은 똥만 쌀 줄 알지. 오늘은 애기똥풀이 이겼다. | 와밭커먼즈 오냥이 (오현경)


©오현경

## 책방 소식

### 착한책방 홈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착한책방의 정체성과 다양한 활동들, 여러 소식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착한책방 신문 <그럴수동>도 차곡차곡 갈무리 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https://goodbooksrest.com/




### 시가 흐르는 현악 4중주 음악회

<인생독서X인생서점>으로 진행하는 착한책방 마지막 프로그램.

시 낭송과 함께 루체(Luce) 챔버 앙살블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로 구성된
현악 4중주 음악을 들으며 가을의 정취에 잠겨보는 시간

**날짜** 10월 25일(일) 오후 4시
**장소** 착한책방
**문의 신청** 010-4405-0731 (책수달)




## 우리동네 다른책방도 소개합니다

### 능내책방

Since 2023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 567 1층
@book_neungnae



**#전원 속 책방 #번역가의 책방 #여행자의 책방**

남양주의 끝자락, 한강이 시작되는 곳에 있는 작은 책방. 자연친화적인 생태공원과 두물머리 등의 관광지에 인접해 있어서 여행의 기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좋은 책이면 장르도 국적도 가리지 않고 편견 없이 서가를 내어줍니다.

### 도심산책

Since 2022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284번길 5-8 1층
@_bookwalk




**#한강과 가까운 책방 #1인출판사 #책과 그림으로 만나는 로컬 커뮤니티**

오늘도 이곳에서는 책이 말없는 위로를 건네고 영감이 퐁퐁 솟아납니다. 책장 사이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느릿느릿 활자 위를 걷다 보면 많은 일이 해결된답니다.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곳, 마음의 속도가 느려져도 괜찮은 곳, 도심산책입니다.




## 마음쉼표, 착한책방 북스테이

마음쉼표, 착한책방 북스테이는 하루 한 팀만 받는 독채 숙소로 운영되며,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1,800여권의 책이 구비되어 있어
책과 함께 쉬며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숙박은 8인까지 이용 가능한 본채스테이, 반려견 동반 가능하며 3인까지 이용 가능한 별채스테이,
그리고 11인까지 머물 수 있는 본채와 별채스테이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마당 파고라에서 바비큐를 즐기실 수 있으며, 밤하늘을 보며 불멍을 하는 시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착한책방 북스테이**

예약 https://naver.me/G58bTSgy

### 리뷰






★★★★★
일단! 사장님 친절하시고 인상도 좋으세요. 침대, 의자, 수건.. 다 깔끔하고 좋았습니당. 가지런히 정리된 책들과 아기자기한 소품들에서도 사장님의 손길을 듬뿍 느낄 수 있었어요!! (애기의자까지 준비해주신 센스!) 구급약품, 각종 게임도 준비되어 있고, 식기도구도 정말 깨끗하고 조리 양념들도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구요~ 덕분에 편하게 쉬고, 재밌게 놀고 갑니당! - 양파***님

★★★★★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온전한 쉼이 목적이었는데 더할나위 없이 완벽한 숙소였습니다.반려견도 세심하게 맞이해주셨고 덕분에 최근 크게 아팠던 아이인데도 편안하게 꿀잠 자더라구요ㅎㅎ 숙소 가득 채워져있는 사장님의 서재도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 꼭 또 방문할게요!! - on***님










★★★★★
보물 같은 공간을 알게 된 것 같은 기분에 넘 행복했어요. 3박 4일이란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버렸네요. 숙박 공간도 단정하게 포근하게 너무 좋았고 손닿는 곳곳에 책이 있어 너무 좋았어요 읽고 싶은 책은 많고 시간은 호다닥 가버리네요... 커피 마시며 책을 볼 수 있는 카페 공간도 아늑하고 넘 좋았어요! 그냥 앉아만 있어도 너무 행복해서 너무 좋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가는지 몰라요. 내일이면 이제 일상 공간으로 돌아가야하는데 아쉬운 마음을 달래려고 다른 계절에 또 오자고 약속하고 자려고 해요:) 이런 좋은 공간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꼬빈***님




### 소식지 출간 후기

**책수달** | 임준구
신문을 만드는 과정이 커먼즈의 든든함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보석같은 글들을 나눠주신 분들과 멋지게 꿰어주신 편집자님께 마음의 물개박수를!!

**오z** | 오승현
깊어가는 가을.. 그럴수동 2호가 나왔네요. 책방신문으로 더 단단해지는 우리 커먼즈가 자랑스러워요 ^^

**오냥이** | 오현경
매우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창간호♥
앞으로도 이 배를 오래오래 함께 타고 싶어요 :)

**기한** | 엄진수
종이책 냄새와 낙엽 냄새가 닮았어요!
소란하던 여름 가고 빨간 노란 나뭇잎 익어가는 지금이 책 펼칠 바로 그때입니다.
책은 가을이 제철이거든요.

**세라** | 최세란
'북작커먼즈'와 함께하는 순간순간들이 저를 생기있게 합니다. 편집자님의 애정이 듬뿍 들어감이 느껴집니다. 오냥이님 최고♡